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 주일공동예배 찬양은 사랑방성서모임 임원들이 합니다.
어제 모임과 지킴이를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이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있습니다.
철원군 평화공원에서 학교로 돌아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꾸러기학교 '베개의 날'을 25일(화)-26일(수)에 진행합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에제르(여성) 모임이 24일(월) 광명시
'하늘샘 좋은나무 공동체'에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사랑방공동체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중에 성찬식과 공동생활팀 정회원 서원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예배후에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모입니다.
공동체(교회) 40주년 준비위원회 조직을 의논합니다.
- 윤화자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권재만목사·차태옥사모 가정 (늘푸른화이팅, 감사)
윤호중·하경임 집사 가정 (늘푸른화이팅, 감사)
박동인·윤경옥 집사 가정 (늘푸른화이팅,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7 호

2023년 4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쥐, 사이비

약 2천 년 전, 예수님께서서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부귀영화는 물론, 자신의 생명조차도 나사렛 예수의 증인으로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천 년 동안 피와 땀을 통해 일궈놓은 신앙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곳저곳에 퍼져있으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궤방을 놓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현대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의 탈을 쓰고서 수상하리만치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한자로는 사이비(似而非)라고 합니다.

손톱 먹은 들쥐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대개 함부로 버린 손톱이나 발톱을 오랫동안 주워 먹은 쥐가 주인으로 변신하는 전설입니다. 집안의 가족들이 집주인으로 변한 쥐와 진짜를 가리다가 원래 집주인이 가짜로 몰려 쫓겨납니다. 원 집주인은 온갖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선비/스님의 충고로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가 가짜를 퇴치하여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사뭇 해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쥐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탐욕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진짜인 척"하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이비라는 말에 아주 잘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이비라는 말은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줄임말로써, 국어사전에 의하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겉보기와 다르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알려진 수많은 단체를 보면 이렇게나 기독교적인 이름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 곳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보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일 것 같고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름들이 그저 단어에 불과하다고 밝혀진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충족을 위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씁쓸

선교와 섬김

합니다. 늑대의 탈을 쓴 양처럼, 거짓을 뒤집어쓰고 진리를 가장하는 교묘한 술책들은 나날이 발전해왔습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인간성을 이용한다"입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이자 충실한 전도자들이 수많은 인파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적절해 보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던가,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투표/기부/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긴 기간 동안 일당 수십 명이 계획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다양한 심리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관계 속에 매몰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점을 깨달아도 쉽게 나올 수 없는 처지로 만들며, 온갖 상납이나 범죄 행위에 동참하길 요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주변에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등,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그곳과 동화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한 바이기도 합니다. 결국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과 헌신된 삶이 아닌, 현혹된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착취하며 현생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피해자 중 약 7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며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병든 면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가치가 빛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있을수록, 그것을 유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것으로 해보려 애쓰는 시도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라는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노력이 있었으며, 복음서의 제작과 사도신경의 정립에는 그런 거짓된 목소리들을 물리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속이고 속고, 진리가 가짜라 매도당하는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말씀에 합치하는 생활, 갈수록 귀해지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 가면을 쓴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 빛처럼 밝고 소금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

<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83장 191장 / 210장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2장

제목 :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다

1. 내용: 성령강림 후 많은 사람이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다. (What)

<문단구분>

1절~4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다

5절~13절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듣다

14절~36절 베드로의 설교

37절~47절 신도들의 공동생활, 교회의 탄생

2. 의미: 성령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었다. (Why)

1) 성령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흘러 넘치는 것이다.

2)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게 만들었다.

3)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3. 적용: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삶을 회복하자. (How)

1)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2)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집중하자.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에 집중하자.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됨이다.

그냥

누구든지 가끔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랑은 크게 엮일 일도 없고, 지내면서 몇 마디 말도 안 나누어 봤고, 딱히 나한테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별로라고 느끼는 사람. ‘윤경옥’이란 사람도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갑자기 ‘따뜻한 사랑방’의 방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날, 성서모임 예비모임에서 방장 선출의 시간에 저를 추천하신 집사님께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윤경옥 집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순간이 ‘그냥’ 별로였던 ‘윤경옥’이 ‘그냥’ 여러분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이지요.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하며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고, 서기와 회계 일도 이재신 집사님이 스스로 맡아 주신 덕분에 우리 방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서로에게 무엇이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별로인 ‘윤경옥’이 방장이란 위치에 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우선은 “그분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방’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만나면 항상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의 방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사랑방 윤경옥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예배의 찬송

*기원의 기도

*기원찬송

시 편 132 : 7, 9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

16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빌립보서 3 : 10-2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 권재만 목사

설교자

방임원들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420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성기 김예지/ 봉헌위원 : 양기모/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으로 성숙되어지기 원하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전해져 부활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른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 경고하며 부활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십자가의 원수. 부활을 바라는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다 멸망하게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앞으로 달려 나가자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생활 중에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 여행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할 때 드러내 주시고 길러주십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성숙되어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전선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 없는 할아버지 아브람에게 반짝이는 별처럼 흩어지는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 수많은 자손이 생겨난 것을 꾸러기들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큰 종이에 물감으로 찍고 뿌려 별을 만들고 풀로 모래를 붙인 후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득 그려 붙였습니다. 다함께 멋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린이학교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뮤지컬 '슈퍼 클로젯'을 관람했습니다. 꾸러기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꾸러기들 모두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재미있게 관람을 잘 했습니다. 뮤지컬 관람도 재미있었지만 세 팀으로 흩어져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도 즐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모두 만난 꾸러기들이 서로를 보자마자 뛰어가 열싸우는 장면은 뮤지컬 못지않게 명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 꼬옥 안고 있었던 5살 아름이와 지음이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날씨는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어 자유롭지 못한 한 주간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 모든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목요일 아침 학교에서 모여 3대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밀리는 차들을 뚫고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은 '슈퍼 클로젯'인데 가기전 차 안에서 꾸러기랑 본다고 시시 할

것 같다고 말하던 친구들이 공연에 압도되어 소리지르고 열심히 호응하며 재미나게 관람을 했습니다. 조별로 점심을 근사하게 먹은 후 경복궁 산책을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오빠는 경복궁 해설가가 되어 궁금함을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랑비가 살짝 내리고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경복궁 안의 모든 구조물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사진 찍어 달라고 난리일 정도로 말이에요.

공연과 고궁 나들이 후기는 주일 저녁 12시 전까지 올립니다. 이번 주 25일(화)은 창동 성교육센터에서 성교육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봄을 느끼며 건강한 시간을 가져 봐요~^^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도보여행 준비를 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율시간에 축구까지 자제하며 도보여행 전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멋쟁이들이 귀엽고 대견합니다. 목요일에는 고모리 저수지 광장까지 예행연습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덥지 않게 살랑살랑 이슬비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4학년이 해외문화체험 학습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수요일 묵상 때, 각오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여진, 김예흠, 김재연, 김주은, 조혜린, 그리고 최기찬 선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

사랑의 콩깍지

몇 주 전 어린이학교에 건강검진으로 하민이가 안과에 다녀왔고 오른쪽 눈이 약시라는 결과가 나와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시력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막상 안경을 쓰니 제 눈엔 잘생겼던 얼굴이 더 잘생겨져 보이고 한결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는 행동도 더 멋져 보이고 말이죠. 아마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또 콩깍지를 썼던 게 언제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정하기론 10년 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은. 그래서 지금의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안경점에 가는 김에 저도 시력을 검사하고 돋보기안경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돋보기인데도 저에게 막상 찾아오니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안경을 쓰니 처음엔 어지럽기도 하고 눈에 익숙해질 때 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후 익숙해지면 안경을 벗기 전까지 인식하지 못하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경으로 글씨를 좀 더 선명하고 크게 볼 수 있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본래의 제 눈으로 돌아와 흐릿합니다.

저는 이 안경이 식구들을 보는 사랑의 콩깍지가 되길 바랍니다.

흐릿하고 답답한 저의 눈을 성령으로 덮어 사랑의 콩깍지로 매일 매순간을 살게 되길 요. 제 눈이 원래 콩깍지 눈인 듯 한 늙은이에 빠지지 않도록 수시로 안경을 벗어 본래 흐릿한 눈인 나 스스로를 알고 다시 성령님께 사랑의 콩깍지를 씌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10년 전 사랑의 콩깍지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길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욱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452, 582, 208

성 경 : 요나서 4장

말 씬 : 인지상정을 초월하신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학교 폭력>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가 유행하면서, 많은 학교폭력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춘의 시기를 얼룩지게 만드는 학교 폭력이 어디에서든 없어지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터마을교회>

1) 하나님께서 새터마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2) 새터마을 식구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내일 떠나는 최기찬 전도사님과 멋쟁이학교 4학년이 안전히 도착해서 잘 생활하도록.

2) 사랑방공동체의 방모임을 활기차고 즐겁게 시작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의 봄은 깊어갑니다. 오락가락한 날씨가지만 하루 하루 햇볕도 달라지고 공기의 냄새도 완연 달라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생활공동체 4월 생일 축하모임으로 저녁식사 후에 함께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생활공동체 자녀인 예흠이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는 멋쟁이들과 인솔교사인 최기찬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하기로 다짐하며 모임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전에 만들어 놓은 상추를 비롯한 잎채소 모종을 밭에 심었습니다. 촉촉한 비로 인해 파릇파릇해진 채소들을 보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